

화순 농협RPC·제재소, 왕겨·톱밥 ‘불법유통’

〈미곡종합처리장〉

지난해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체 아닌 곳에 1200t 넘겨 군 “이해 부족 탓...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 지도·감독 강화”

화순군 지역에서 나오는 왕겨와 제재톱밥 등이 적법한 처리 없이 불법유통되는 정황이 포착돼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화순 지역 농협과 업체 등에 따르면 지역 D농협과 H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는 지난해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 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업자 P씨를 통해 각각 1100여t과 100여t을 불법유통했다.

또 등북면에 있는 A제재소 역시 제재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재톱밥 등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없이 무자격업자에게 불법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쌀을 도정하고 남은 왕겨나 목재 제재과정에서 나온 제재톱밥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질로 폐기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왕겨나 제재톱밥은 일정량(대기·폐수 등의 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1일

100kg, 배출시설이 없고 1일 평균 300kg 등) 이상 배출된다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고,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신고를 얻어야 하며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입력 관리해 등록·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농협과 업체는 이 과정에서 사업장폐기물과 관련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업장폐기물의 배출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과정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농협 RPC와 제재소의 왕겨나 톱밥이 불법유통되는 것은 농협과 업자들의 산업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 관계자와 업자들이 사업장폐기물인 왕겨나 톱밥 등의 처리에 대해 알지 못



화순 D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쌓여있는 왕겨. 이 왕겨는 목요용 상토재나 축사 보온재로 유통된다.

하고 관례에 따라 원하는 이들에게 유통하거나 처분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관련 기관이 현황 파악에 나서자 해당 농협과 업체측은 향후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순군 관계자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왕겨나 톱밥이 불법유통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폐기물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해

적법하게 배출·운반·처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 같은법 18조 제1항을 위반해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담양군, 길위의 인문학·남도 맛기행 책자 발간

담양군은 인문학과 미식을 주제로 한 여행 홍보 책자인 ‘명사와 떠나는 로드스콜라’와 ‘토요일은 좋아 담빛 맛기행 <사진>’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명사와 떠나는 로드스콜라는 대동문화재단이 지난 7월까지 다양한 분야의 명사와 함께 진행한 길 위의 인문학 여행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을 담았다.

토요일은 좋아 담빛맛기행은 남도 음식문화콘텐츠진흥회가 선정한 담양·광주 지역 맛집들을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중 8권역인 담양군과 나주시·목포시



·광주시는 2021년까지 함께 남도맛기행 사업을 진행한다.

담양군은 이 사업의 하나로 여행 책자를 발간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담양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해 주제별 관광코스를 지속해서 개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재근 기자 jig@

담양군 이장연합회 최용만 회장 등 2명 유공 표창

담양군은 지난달 28일 전국이통장연합회 전남도지부가 주관해 광양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라남도 이통장 워크숍에서 담양군 이장연합회 최용만 회장과 금성면 최승권 이장이 유공 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전국이통장연합회 전남지회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 발표와 모범 이통장에 대한 표창, 심폐소생술 교육 등 주민과 지방행정의 다리 역할을 하는 전남의 이통장 간 친목을 다지는 다양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해 모범 이통장 2명에게 행정안전부장관 유공표창을, 22명에게 전라남도지사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유공 표창을 수상한 최용만 담양군 이장연합회 회장은 “담양군의 모든 이장이 행정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담양=정재근 기자 jig@

장성군보건소, 초등생 2000여명 ‘구강건강교실’ 운영

장성군보건소는 지역 초등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 구강건강교실’ <사진>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보건소 치과의사가 직접 나서서 이번 구강건강교실은 충치가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구강검진과 교육을 통해 치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이에 불소를 씌우는 도포작업 병행해 충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은 과자 등 단 음식에 길들여져 있어 치아우식증(충치)이 발생하기 쉽다.

12세 이하 아동의 20%가량이 치아우식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려면 불소를 도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성군보건소는 올 상반기에 13개 초등학교 195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함께 불소 도포 등의 구강 건강관리를 실시했다.

조미숙 장성군보건소장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이에 불소를 씌우면 충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우야기의 습관이 평생 구강건강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선비문화 체험은 장성에서...

장성군, 향교·서원 활용사업 공모 5년 연속 선정

장성군은 문화재청의 내년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이에따라 사적 제242호 필암서원과 도 기념물 장성향교·고산서원·봉암서원을 활용한 선비문화 체험 행사를 5년 연속 추진하게 됐다.

선비문화 체험은 장성의 대표 문화재인 필암서원(사적 제242호), 장성향교(도 기념물 제105호), 고산서원(도 기념물 제63호), 봉암서원(도 기념물 제54호)을 활용해 청소년에게 유교 문화와 선조의 지혜를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1000여명이 참여했다.

선비문화 체험은 ▲1박2일 선비 문화 체험 여행 ▲문화의 날 풍류여행 ▲문화유산교육사 양성 ▲선비문화 체험학교 총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기초적인 예절 교육부터 전통 공예와 인문학 특강까지 다양하게 짜여져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다.

내년에는 문화유산 관련 인적 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문화유산교육사양성과정이 새롭게 신설된다. 선비문화체험학교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서원을 비롯해 장성의 대표 문화유산인 장성 황룡 전적, 요월정원림, 박수량 백비 등을 활용한 ‘2019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은 내년 3월부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장성 청소년들에게 지역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강사가 아동센터나 초등학교 등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서원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필암서원에서 청소년들이 선비문화 체험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지역문화유산이 내포한 역사성을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워크북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돋우고 우수한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워줄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훌륭한 문화유산이 많

은데도 제대로 알 기회가 없어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흥선대원군이 ‘학문은 장성을 따라갈 곳이 없다’는 뜻으로 남긴 ‘문불여장성(文不如長城)’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화순군 작은영화관 ‘화순시네마’ 누적 관람객 5만명 돌파

화순군은 작은영화관 ‘화순시네마’ 누적 관람객이 지난 1일 5만명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오는 7일 축하 이벤트로 당일 영화관을

찾는 관람객 300명에게 추첨을 통해 팝콘과 음료를 제공한다.

화순군은 이달 리모델링이 끝나고 ‘2018 화순 국화향연’ 축제기간에는 많은

관람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월 화순읍 화순군민회관에 2개 상영관, 124석 규모의 작은영화관이 문을 열었다.

연중무휴로 매일 5~6편 최신 개봉작을 상영한다.

관람료는 일반 6000원, 65세 이상 및 청

소년은 5000원으로 일반 영화관에 비해 40% 저렴하다.

관람 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www.hwasun.sscinema.org)나 스마트폰 작은영화관 앱으로 할 수 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곳!!

개발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인접 국가산단에 투자하거나 공동중개 하실분 상담환영!!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

